

2000年代를 향한 企業經營觀

技術模倣脫皮 創造的研究 擴大해야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계경제가 하강국면에 접어들면서 그 成長勢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주요교역대상국인 美國 등 선진국들의 수입수요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또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장벽이 한층 더 높아져가고 있다.

국내 경제 또한 마찬가지로여서 올들어 일부업종·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국내 소비수요가 크게 줄어들어 등 내수경기마저 전반적인 침체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선진국의 시장개방압력에 따른 수입자유화의 본격적인 확대실시로 내수시장을 둘러싼 국내 기업간의 경쟁 역시 여러 부문에서 치열해지고 있다.

기업경영환경의 어려움은 하반기에 들어도 쉽게 호전될 것 같지 않다.

올 하반기에 세계경제 성장세가 다소 회복되면 국내경기도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상반기중의 부진을 만회할 정도는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요즘 기업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더우기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업환경은 기업활동에 불확실성을 안겨주어 불안감을 갖게 함으로써 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럴 때일수록 고급관리자의 역할은 한층 중요시된다. 고급 관리자는 기업의 대내외적인 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 변화추이를 면밀히 파악해서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미래의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기업혁신을 이끌어가야 한다.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함께 비교우위를 높일수 있는 장기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업활동전반에 걸쳐 질적인 선진화가 이룩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급관리자는 경영자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예비경영자이다.

기업조직을 인체조직에 비유해 볼 때 이들은 모든 신경조직의 통로이자 신체조직을 지탱할 수 있는 척추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00년대를 눈앞에 둔 지금 우리 기업은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갖고 국제환경 속에서 新經營시대를 개척, 기업혁신을 이룩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기업은 쉽게 도태된다.

2000년대 고도산업사회의 건설은 꼭 해결되어야 할 민족적인 과제이자 염원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질적인 고도화를 이루고 산업별·지역별·계층별로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이 이룩되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대체에너지 등 새로운 자원의 개발은 물론 에너지의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다가올 고도정보화 사회에 대비, 정보관리의 과학화와 능률화 역시 꼭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2000년대 국민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대응자세를 다듬어가야 한다. 모든 산업에서 단기적이고 전술적인 대응이 아니라 장기

特別中繼

- … 이 글은 지난 8月6日 忠南 成歡에 있…○
- …는 연암축산대학에서 있는 本會 및 력…○
- …기금성그룹 具滋暎會長의 特講「2000年…○
- …代를 향한 나의 企業經營觀」內容을 간…○
- …추린 것이다. ……………〈編輯者 註〉……○

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병행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대망의 2000년대를 향한 道程에서 기업경영과 관계되는 몇가지 주요 환경을 다음과 같이 예측해 볼 수 있다.

먼저 정치적·사회적인 변수이다.

오는 88년에 있을 올림픽은 사회 각부문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東北亞 정세와 관련한 南·北韓 관계개선이 경제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할 것이다.

둘째로 산업구조의 변화이다. 고도기술을 바탕으로 한 정보사회가 열리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부문의 기술혁신이 이뤄질 것이며 선진국·개발도상국·후진국간 산업의 비교우위가 재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로 기업간 또는 국가간의 경쟁양상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기술 경쟁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더욱 치열해지고 또한 국내시장에서는 개방경제체제에서 외국기업과의 경쟁을 벌여야 한다.

네째로 민간주도의 경제체제로 모든 경제정책이 자유경쟁의 원리에 따라 자율적이고 개방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로 경영자 책임중심의 경영에서 관리자 책임 중심으로 바뀔 것이다.

이처럼 기업의 주변여건은 크게 변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이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영속적인 발전을 보장할 수 없음은 물론 퇴조의 길을 걸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의 존립뿐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처해 나가



〈具 滋暎 會長〉

야 한다.

첫째 업종이나 제품구조의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모방위주의 기술단계에서 창조적인 기술단계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개발투자를 늘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술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기르고 사무자동화와 공장자동화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과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해외사업의 추진을 더욱 가속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현지 직접투자를 늘리고 기술용역·플랜트수출과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셋째 경영기법의 선진화가 이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한된 경영자원의 조달과 효율적인 활용능력을 높이고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위험관리능력의 향상과 하드웨어 기술발전에 맞는 소프트웨어기술 등 경영관리 기술이 향상되어야 한다.

네째 조직의 혁신과 인력의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사회변화와 경쟁환경에 신속히 적응하고 조직의 비대화로 인한 활력저하에 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직관리개념의 혁신이 필요하며 인력高度化 노력과 2000년대를 이끌어 나갈 중추인력이 양성되어야 한다. (※)